

보 도 자 료



- ◆ 2025. 4. 15. (화) 배포
- ◆ 총 5쪽 (본문 1쪽, 붙임 4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
 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

겨울을 피해 남극 떠나는 펭귄, '찰칵'

극지연구소, 제15회 극지사진콘테스트 수상작 공개...대상 <펭귄의 결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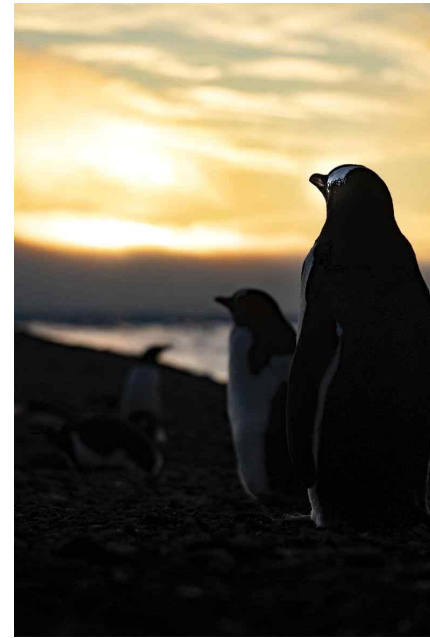
- 극지연구소 (소장 신형철)가 개소 21주년을 맞이해 제15회 극지사진콘테스트 수상작 15점을 공개했다.
- 대상은 현재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연구대로 근무 중인 고용수 지질·지구물리대원의 <노을과 파도가 응원하는 펭귄의 결의>가 수상했다. 이 작품은 지난 3월 초에 기지 근처 세종곳에서 촬영됐으며, 남극에 겨울이 찾아오면서 킹조지섬을 떠나는 펭귄들의 모습을 담아냈다.
- 극지사진콘테스트는 극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극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우수작을 선정하는 공모 프로그램이다. 올해는 총 187점이 접수됐으며, 약 4천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.

붙임·별첨. 제15회 극지사진콘테스트 수상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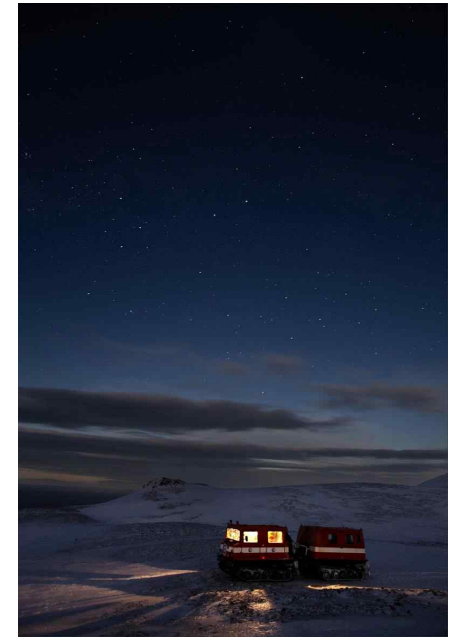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 또는 연구소에 있으며, 활용 시 [극지연구소 000 (촬영자 이름)]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 본 보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, 사진 활용에 대한 다른 문의가 있을 경우 극지연구소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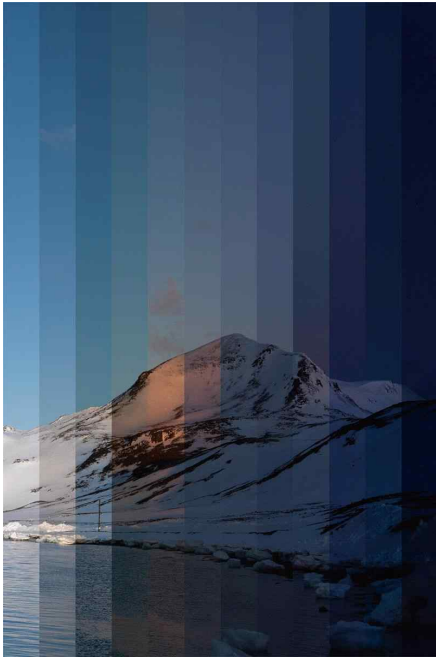
제15회 극지사진콘테스트 수상작



[대상] 노을과 파도가 응원하는 펭귄의 결의 [우수상] 남십자성과 여명 (촬영 민준홍)
(촬영 고용수)



[우수상] 날아보자 (촬영 서명호)



[가작] 세종봉의 시간 (촬영 민준홍)



[가작] 장보고의 노을 (촬영 박이경)



[가작] 세종기지 위를 감싸는 빛의 고리 (촬영 고흥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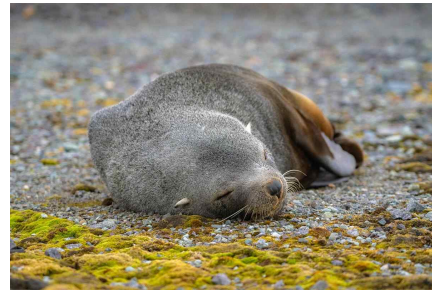
[가작] 남극 귀요미 (촬영 서명호)



[가작] 빙산의 '이'각 (촬영 안승민)



[가작] 물 온도 체크 실패, 긴급 탈출 중! (촬영 고흥수)



[가작] 잠자는 남극 멍멍이 (촬영 김유민)



[가작] Antarcipolitan (촬영 남석현)



[가작] 빙하와 바다가 만나는곳 (촬영 박이경)



[가작] 얼어붙은 마리안 소만 (촬영 김창은)



[가작] 지금은 사라진 빙벽 (촬영 문흥수)



[가작] 남극의 위장술 (촬영 문흥수)